

한암스님 가르침 신행 거울로

월정사-현대불교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3월 17일부터 6회
선사상 강좌 · 화엄산림 · 실참 프로그램 등 매회 2박 3일 진행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필자연정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강원도 오대산으로 들어가 27년 동안 동구 밖을 나오지 않은 채 선 수행에 몰두했던 한암 스님.

근세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승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종정이었던 한암 스님(1876~1951)을 배우는 '한암대종사 수행학림'이 평창 월정사(주지 정법)에서 열린다. 이번 학림은 수행에 목말라하던 수도승을 수행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한암 스님이 펼쳤던 실천적 수행법인 '승가오칙(僧家五則)'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승가오칙은 선 · 간경 · 염불 · 의식 · 가람수호를 말한다.

근대에 이렇듯 스님치고 한암 스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스님이 없을 정도로 한암 스님은 한국 불교에 큰 족적을 남긴 선승이자, 계(戒) · 정(定) · 혜(慧) 삼학(三學)을 겸비한 수행법을 몸소 실천한 진정한 수행자였다.

선 · 간경 · 염불 · 의식 · 가람수호의 승가오칙(僧家五則)에 입각해 선수행 풍토를 진작시키고, 지계(持戒) ·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써 무애(無礙) · 막힘이 없는 것의 삶을 살았으며, 한국전쟁 때 은 몸으로 상원사를 지켜낸 일화는 유명하다.

이런 한암 스님의 삶은 현대에 더더욱 절실한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말만 앞세우는 사회 풍조, 원력과 질서가 무너진 혼란 속에서 한암 스님의 가르침은 '바른 인간상'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림 첫날인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한암

대종사 수행 및 선사상 강의'는 한암 스님의 수행관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현해(동국대 이사장) · 정법(월정사 주지) · 현각(원주 성불원 원장) · 무어(축서사 선원장) 스님 등 6인의 강사가 한암 스님의 종단관 · 선사상 · 선사상 등 각기 다른 주제로 강의한다.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 이번 학림의 주요 테마인 화엄산림이 진행된다.

화엄산림은 종범(중앙승가대 총장) · 각성(전 통도사 강주) · 지운(동화사 강주) · 지안(은혜사 승가대학원장) · 통광(쌍계사 강주) · 해남(통도사 금강계단장) 스님이 차례로 나서 화엄경 각 품별로 핵심주제를 선정해 강의한다.

이 두 강좌 전후로는 실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날 강의에 이어 2일째(토요일)는 새벽예불을 시작으로 염불정진, 경행, 운력, 108배 및 참선, 오대 참배 등이 이어지며, 화엄산림 후에는 좌선법 강의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철야정진(좌선)이 계속된다. 3일째는 참법 및 포살과 삼보 일배가 진행된다.

이번 수행학림은 재가불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마지막 6차 학림 뒷날인 4월 24일 낮 12시부터는 대법륜전에서 '한암대종사의 사상과 그 영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종범 스님과 김광식(부천대 교수), 윤창화(민족사 대표)씨가 한암 스님의 선사상, 수행론, 조계종의 성립과 초대종정 한암대종사, 한암 스님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귀(一生敗歸)>을 주제로 발표하며, 혜거(금강선원장) · 성본(동국대 교수) 스님과 신규택(연세대) · 고영섭(동국대) 교수가 논평자로 나선다. (033)332-6661~5, 홈페이지 woljeongsang.org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한암대종사 수행 및 선사상 강의 일정

날짜	강사	내용
3.17	현해 스님(동국대 이사장)	한암대종사의 종단관과 애증심
3.24	김광식(부천대 교수)	조계종단에서의 한암대종사의 위상
3.31	정법 스님(월정사 주지)	유무생사의 관점에서 본 한암대종사 선사상
4.7	현각 스님(성불원 원장)	한암대종사와 금강경
4.14	김호성(동국대 교수)	한암대종사의 수행관
4.21	무어 스님(축서사 선원장)	한암대종사의 선사상

●화엄산림 일정

날짜	강사	내용
3.18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화엄경 1품~6품
3.25	각성 스님(전 통도사 강주)	화엄경 7품~14품
4.1	지운 스님(동화사 강주)	화엄경 15품~22품
4.8	지안 스님(은혜사 승가대학원장)	화엄경 23품~30품
4.15	통광 스님(쌍계사 강주)	화엄경 31품~38품
4.22	해남 스님(통도사 금강계단장)	화엄경 39품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대표 (02)2004-8211~2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사퇴

'삼광사 노조'가 발달...부위원장 춘광 스님 代行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이 3월 1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천태종은 당분간 종현종법에 따라 부위원장 춘광 스님(서울 관문사 주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운덕 스님의 사퇴는 건강상 이유를 들고 있지만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부산 삼광사 주지의 해임을 관철시키지 못한다. 따른 인사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무원장 사퇴란 파국으로까지 치달게 한 부산 삼광사 문제는 노조 설립에서부터 비롯됐다.

부산 삼광사에서 일하던 총무원 30여명은 사찰내 전기업무를 담당하던 총무원 해임을 문제삼아 지난해 8월 26일 노동조합을 결성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이들은 '고용안정 보장' '노동조합 인정' '인권해탈 금지' 등을 요구하며 스님들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삼광사측은 사찰에서 노조란 있을 수 없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김기아 민주노총이 관여하면서 노조가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에서 농성을 벌이겠다고 하자 종단 대종스님들이 노조 문제와 관련해 삼광사 주지가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총무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운덕 스님은 삼광사 주지의 책임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대종스님들의 주지 경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종스님들이 삼광사 주지의 문제를 제자 요구하자 2월 23일 운덕

스님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종정 스님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즉각 반려됐다.

이 결과를 지켜본 대종스님들이 이번에는 노조 문제와 함께 불투명한 재정운영에 불만을 품은 삼광사 일부 신도의 투서와 2월에 열린 삼광사 감사에서 지적된 재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자 운덕 스님은 2월 27일 또다시 사표를 제출했다.

이어 3월 1일 종회와 총무원, 감사원 등의 부장급 이상 스님 33명으로 구성된 산중공사에서 운덕 스님의 사임을 전격 수용키로 결정했다.

천태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발달에 중심이 된 삼광사 주지스님도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운덕 스님의 사퇴에 따라 앞으로 풀려질 관심은 차기 총무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이다.

천태종 총무원장은 종회의원 30인이 선출하는데 단일 후보를 결정해 종정스님의 인준을 받는 절차로 정해진다. 하지만 사실상 종정스님이 차기 총무원장 선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천태종 내부에서는 현재 C스님과 D스님이 총무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번 사임한 운덕 스님은 제7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1981년 이후 13대인 현재까지 26년동안 재직해 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김행정전도랑 금당선원
조실 진제 스님 6면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백현사 조실 달월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온가곡 군포교 이기성씨 가족



삼국유사 특별전 23면

동국대 불교대 새터 9면

현각 스님의 平生은? 14면

삼사회 성지순례기 16면

오형으로 푸는 차 26면

'현대불교' 해외통신원 모집

현대불교가 2006년 지면개편에 따라 국제편을 신설하고 세계 곳곳의 불교소식을 전할 해외통신원을 모집합니다. 해외통신원은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하면서 거주 국가의 불교 소식을 전하게 되며, 기획 취재 시 원고료 뿐만 아니라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받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위 분들에게 대한 추천도 좋습니다. 특히 불교국가에서 학업 중에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자 격 : 불교신도라면 누구나 가능(출가자 포함)
- ◇지 역 : 동남아시아 불교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
- ◇연락처 : 전화(82-2-2004-8240) 팩스(82-2-737-0698)
- ◇이메일 : mwihan22@hanmail.net ivanovich29@hanmail.net

새 문공부장관에

김명곤씨

노무현 대통령은 3월 2일 새 문화관광부장관에 김명곤 장군(사진)을 임명했다. 김 장관은 1952년 전주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독어교육학과를 나왔다. <뿌리깊은 나무>의 기자, 배화여고 교사, 연극배우 등 다양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종교는 무교. 조용수 기자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봉행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역임하시고 '승가오칙(僧伽五則)'의 수행법을 널리 퍼신 한암대종사의 선사상과 수행가풍을 재조명하고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선방 수좌스님들의 지도에 따라 '승가오칙'에 입각한 수행을 통해 자기 내면의 부처를 바로 볼 수 있는 수행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수행학림 기간 중에 화엄사상의 중심지인 오대산에서 역대 크스님들의 유훈을 계승하고 화엄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화엄경>의 대강백스님들을 초빙하여 화엄산림을 봉행합니다.



기 간: 3.17 ~ 4.24. (매주 금~일) 장 소: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
참가비: 주당 10만원

■수행학림 전체 일정 (3.17~4.23 매주 금·토·일)

날짜	시간	내용	장소
금	19:00	저녁예불	월정사
	20:00	한암대종사 수행 및 선사상 강의	
	04:00	새벽예불 / 염불정진	
	05:00	경행(전나무 숲) / 아침공양 / 운력	
	09:00-15:00	오대 참배(108배 및 참선)	
토	15:00-17:00	화엄산림(화엄경 강의 - 6회) / 약석	월정사
	19:00	저녁예불	
	20:00	좌선법 강의 및 지도	
	21:00-05:00	철야정진(좌선)	
	05:00-06:00	경행(한암 · 탄허대종사 부도탑)	
일	09:00-10:30	아침공양	상원사
	11:00	참법 및 포살	
	12:00	삼보일배 / 정근정진	
	12:00	서원 및 회향	
	09:00	한암문도회 운영위원회	
4.24	10:40	한암대종사 탐진제	월정사 적광전
	11:00	한암대종사 수행일화집 봉정법회	
	12:30	한국불교의 한암대종사 선사상' 학술세미나	

한암대종사 수행일화집 봉정법회

- ◆일 시: 2006년 4월 24일 10시
- ◆장 소: 오대산 월정사 적광전

'漢岩大宗師의 思想과 그 影響' 학술세미나

- ◆일 시: 2006년 4월 24일 12:00 ~ 17:00
- ◆장 소: 오대산 월정사 대법륜전

※문의처: 월정사 총무소 033)332-6664, 5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40